

## 5분 자유발언

-고성시장 지하 1층 유희공간 활용과 공룡시장, 땀질식  
보수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외리 고성시장과  
성내리 공룡시장의  
근본적인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외리 고성시장 지하 1층  
주차장 옆에 있는 중앙사우나와  
그 주변에 방치된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주차장 옆의 중앙사우나와  
주변 공간은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시장 지하 주차장의 출구를 새로 조성하거나,

인근 유희지와 연계해  
지하주차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잠재 자원입니다.

특히 고성시장 일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주변은 늘 혼잡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성 장날에는  
교통이 마비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어서,  
주민들과 상인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이용객과 상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구조적인 이유로 주차 확장이 어렵다면,  
이곳을 상인들의 휴게공간이나  
체력 단련실로 리모델링해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리 공룡시장  
시설현대화 공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시장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동안 공룡시장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이 그때그때의  
임시 보수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룡시장 건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단순한 리모델링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안전과 효율,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전면적인 재건이 필요합니다.

부분 공사만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비효율과 예산 낭비,  
그리고 안전 위험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입니다.

오래된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냄새로 인해  
상인들은 락스를 붓거나 환기하는 등

그저 임시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취는  
손님들의 발길을 멀어지게 하고,  
시장 이미지와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공룡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지분 문제를 정리하여  
시장 전체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군이 주도적으로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시장 재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은 단순한 상가가 아닙니다.

고성읍 상권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얼굴입니다.

이제는 오래된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거와 새 단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성시장 주차장 확장과 공룡시장 재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고성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다시 찾고,  
상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시장!

그런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